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4.4(월) ~ 2022.4.8(금)

제공일시 2022 04 15 Fri
담 당 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 의 02 398 7675

산업통상자원부 kpc 한국생산성본부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4.4(월) ~ 2022.4.8(금)

제공일시 2022 04 1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SFDR(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의 세부 규제기술표준(RTS) 드디어 발표

(Lexology, 2022.4.6) Travers Smith 기자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02048763-1409-407d-891a-61431f0a2bf1

- **유럽위원회는 2년 만에 EU의 SFDR에 대한 세부 규칙의 최종판인 규제기술표준을 발표**함
- 제8조(환경과 사회 투자상품), 제9조(지속가능한 투자상품)라고 불리는 지속가능금융에 관한 세부디테일을 포함하여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됨
- 사실상 최종 RTS는 이전의 초안과 거의 비슷합니다. 최소 18가지 필수 지속가능성 지표를 보고해야 하며, 최종 보고목록은 14개 일반지표(환경 9개, 사회 5개), 국부 펀드(sovereigns)2개지표(환경 1개, 사회 1개), 부동산 투자 2개 지표(2개 모두 환경)로 구성돼있고, 자발적 공개를 위한 22개 환경지표, 24개 사회지표를 별도로 정리함

2. '카톡'을 기간설비처럼 규제?…유럽 빅테크법, 전세계 스탠다드 될까

(한겨레, 2022.4.7) 이재연 기자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7964.html

- **유럽연합(EU)이 최근 카카오톡,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일종의 '기간설비'로 보고 규제해야 한다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도입하기로 확정**, 프랜드(FRAND) 원칙을 강제하는 내용
- 프랜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거나 과하게 비싼 값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의미로, 보통 중요한 특허를 보유한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
- 유럽연합이 일정 규모 이상의 앱마켓과 소셜 미디어, 검색엔진 등 3가지 플랫폼에 프랜드 의무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될지 주목받고 있음

3. 이번에는 EU가 철강재 '블랙홀'로 등장…국내 업계 긴장

(대한경제, 2022.4.6) 최지희 기자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4051408518510616

- **유럽연합(EU)이 러시아 화석연료에서 독립하기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국제 철강재 시장이 흔들리고 있음**
- 국제 금속거래 전문가들은 EU의 청사진대로 프로젝트가 추진될 경우 철강재만 약 5200만t이 필요하며, 유럽철강협회가 추산하는 EU의 철강재 소비량은 대략 1억6000만t으로 밝힘
- EU의 갑작스러운 철강재 소비 급증이 국제 금속거래시장에 주는 타격은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터빈과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에 사용되는 강철 슬래브의 최대 수출국인 점을 감안하면 국제 원자재 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됨
- **EU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철강재 소비의 새로운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철강재 수급대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자재 수급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산업계 내부에서 마찰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1. '미국 기후공시 의무화' 바빠진 글로벌 회계업계

(내일신문, 2022.4.6) 이경기 기자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19212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 관련 위험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감사인의 업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SEC 제안에 따르면, 기업의 재무제표 주석에 포함된 기후 지표와 공시는 모두 감사 대상이 되므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6일 **"현재 협의 중인 SEC의 제안은 기업의 기후 위험 평가와 관련해 감사인이 해야 하는 작업의 양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음
- SEC의 기후변화 관련 공시 규정안은 공개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확정시 시가총액이 7억 달러 이상인 기업들은 2024년 회계연도부터 스코프3 배출량을 공시해야 함으로 앞으로 해당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2. '러시아 석탄' 제재 후폭풍…EU 태양광·풍력 시장 2배 커진다

(머니투데이, 2022.4.8) 최민경 기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0813253341020

-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에 합의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시간표가 빨라지고 있음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배 확대하는 법을 통과시킨 독일에 이어, 영국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높이기로 정했으며, EU는 러시아산 석탄 수입과 러시아 선박의 역내 항구 진입 금지에 합의하며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지속하고 있음
-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등 EU 11개 회원국은 러시아 화석 연료로부터 독립을 위해 EU의 기후목표인 '핏포55(Fit for 55)'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 이에 따라 **유럽에 진출한 한국 재생에너지 기업들, 패널을 생산하는 '한화큐셀', 태양광 패널 원자재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 도 수혜를 입게 됐으며 국내 풍력 기업 중 전체 매출액 대비 유럽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씨에스윈드'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3. 美기업들, 尹에 "한국식 규제·노동법·높은 세율 부담스럽다"

(아시아경제, 2022.4.7) 문채석 기자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40712515692119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조사결과, **한국이 싱가포르에 이어 미국 기업들로부터 아시아 지역에서 두 번째로 기업하기 매력적인 국가로 선정**
-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점들로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가 78.6%로 가장 높았고**, 최고경영자(CEO) 리스크(42.9%)와 엄격한 노동법(42.9%), 높은 세율(25.0%) 등도 존재
- 코로나19 영향과 관련해선 회원사 10곳 중 4곳이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가장 어려웠던 점으론 공급망 문제(44.0%), 불확실한 경제상황(35.7%) 등이 존재

4. "美서 스마트폰 팔려면 재활용 해법 내놔야"

(한국경제, 2022.4.10) 차준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693981?date=20220411

- 리사이클러스 인터내셔널(ERI)의 존 슈게리안 대표는 **미국 23개 주 기업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때 친환경적인 폐기 방안을 구축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전자 폐기물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는 미국에서 스마트폰을 팔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
- 슈게리안 대표는 전 세계 전자폐기물 재활용률은 17%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자폐기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 정부 등 순환경제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전자폐기물의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로, 한국도 순환경제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조언

1. 전쟁-인플레에 ESG 투자 2년 후퇴

(헤럴드경제, 2022.04.11) 김우영 기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411000243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면서 ESG 투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11일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글로벌 ESG 펀드로 유입된 자금은 150억 달러로, 2020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ESG펀드 유입액은 2020년 4분기 1000억 달러를 넘어선 뒤 2021년 1분기 1600억 달러로 치솟았다가 이후 분기별로 13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2022년 1분기에 7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꺾였음
-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ESG 주식형 펀드로의 유입액은 약 130억원으로 2월(610억원)에 비해 급감하고 일반기업의 ESG채권 발행도 줄었음
- 이는 전쟁과 인플레로 인해 기술주가 급격히 조정을 받으면서, 글로벌 자금이 기술주 대신 에너지 관련 투자처로 이동하자 벌어진 일이므로 장기적으로 ESG시장 확대 기대는 유효하다는 분석

2. 리딩 글로벌 은행들, 항공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착수

(ESG today, 2022.04.11.) Emanuela Kerencheva
https://www.esgtoday.com/leading-global-banks-partner-to-finance-decarbonization-of-aviation-industry/

- **6개의 글로벌 금융기관, 뱅크오브아메리카, BNP파리바, 시티, Crédit Agricole, 소시에떼 제네랄, 스탠다드 차타드 등이 항공산업 기후관련 재무그룹 출범을 위해 RMI의 기후금융센터와 파트너십을 발표**
- 항공산업은 특히 탈탄소화가 어려운 분야로, 항공기 효율개선,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개발, 저탄소 추진 시스템을 활용한 항공기제작 등 향후 몇 년 동안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영역으로 꼽힘
- 새로운 워킹그룹은 항공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공통 목표를 정의하기 위한 '기후 연계 금융(CAF, Climate-aligned Finance)' 프레임워크를 만들 목표를 갖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출범을 목표로 하여 앞으로 항공 산업 배출량 평가, 저탄소 기술투자, 스코프3 배출량 보고, 자금조달 등에 나서는 중요 이니셔티브가 될 것으로 예상됨

3. 무디스, ESG프로파일과 신용 임팩트점수를 새로운 산업 군에 확대적용

(ESG today, 2022.4.5) Mark Segal 기자
https://www.esgtoday.com/moodys-integrates-esg-into-credit-scores-for-consumer-products-financial-institutions/

- **무디스는 소비자제품, 음료, 선박, 제조업, 항공 및 국방산업, 금융기관, 미국과 유럽의 상장대기업 등에 ESG프로파일과 신용 임팩트 점수를 확장했다고 밝힘**
- 무디스는 ESG 고려사항을 각 기업의 리스크 익스포저와 신용 영향 정도를 포함해 이들 분야의 신용분석에 명시적으로 통합한다고 했으며 분석에는 발행자 프로파일 점수(IPS)와 신용영향 점수(CIS) 등 두 가지 유형의 ESG 점수가 포함될 예정임
- IPS 점수는 신용위험에 중요한 ESG 고려사항에 대한 발행자의 익스포저를 측정하는 반면 CIS는 그러한 ESG 고려사항이 발행자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1. 지난해 규제기관의 '대기업 제재' 571건…LG화학 34건 '최다'

(이데일리, 2022.4.6) 최영지 기자
https://www.edaily.co.kr/news/NewsPrint.aspx?newsid=01735126932259968&mediaCodeNo=257&OutLnkChk=Y

- 6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2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대기업이 지난해 국내·외 규제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가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났고, 같은 기간 제재 금액도 5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 기업별로는 LG화학의 제재 건수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재 받은 금액이 가장 큰 기업은 삼성중공업이 차지함
- 삼성중공업은 해외규제기관에 대한 합의금 지급 영향으로 제재 금액이 2020년 36억원 대비 45배 이상 늘었으며, 삼성중공업은 2006~2007년 브라질 페트로브라스에서 드릴십(원유 시추선) 3척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선박중개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브라질 감사원·송무부·검찰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약 1627억 원을 지급한 바 있음

2. 국내 기업, 유럽 특허 출원 최고 기록 갱신…삼성 2위·LG 3위

(뉴시스, 2022.4.5) 이재은 기자
https://newsis.com/view/?id=NISI20220405_0001821028&cID=13001&pID=13000

- **국내 기업의 2021년 유럽 특허청(EPO) 특허 출원 수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3.4% 증가한 9394건에 달해 역대 최고 기록 갱신함**
- 한국의 EPO 특허 출원 중 1위를 기록한 분야는 디지털 통신(전년 대비 8.4% 증가)이었으며, 청정에너지 기술이 다수 출원되며 작년 해당 항목에서 선두였던 전자 기기 및 도구, 에너지(전년 대비 4% 감소) 분야는 올해 2위로 밀려남
- 삼성은 2021년 대비 57% 더 많은 반도체 특허를 출원하며, 반도체 분야의 전체 특허 출원 중 13%를 홀로 기록하여 각각 3%대의 비중을 차지하는 2위 인텔 및 3위 TSMC의 기록을 훨씬 웃도는 확고한 1위를 차지했고, LG는 전 세계 기업 중 전자 기기 및 도구, 에너지 분야 1위 특허 출원인에 오름

3. SK이노베이션, 업계 최초 국제항공 탄소배출 영향 측정 자격 취득

(뉴시스, 2022.4.10) 이인준 기자
https://newsis.com/view/?id=NISI20220410_0001827104&cID=13001&pID=13000

- SK이노베이션은 10일, 환경과학기술원 구성원들이 국제항공분야 탄소배출량 정식 검증원(CORSIA Verifier) 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히면서 **국내 정유화학 업계 최초로 국제항공 분야에서 넷제로 추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주목** 받고 있음
-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는 지난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배출권을 구매·상쇄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만든 제도로 2022년 1월 기준 전 세계 107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 이번 자격 취득과 조직 확대 등을 통해 생산하는 모든 석유류 제품의 생산,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검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조직과 역량을 구비하고, 공급망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축 방안 수립에 있어 보다 높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 또 **이 역량을 활용해 국내 항공사들이 친환경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4.4(월) ~ 2022.4.8(금)

제공일시 2022 04 1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UN PRI·Eurosif, 유럽연합에 기업 탈탄소화 정보공개 촉구 서한보내

(responsible-investor, 2022.4.12) Paul Verney
https://www.responsible-investor.com/pri-and-eurosif-urge-eu-to-make-firms-back-up-net-zero-pledges-with-robust-disclosures/

(Eurosif, 2022.4.11)
https://www.eurosif.org/news/joint-sustainable-investment-industry-letter-on-csrd/

-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과 유럽지속가능투자포럼(Eurosif)이 "지속가능성보고규칙(CSRD)에 넷제로 약속에 대한 강력하고 세분화된 정보공개 요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등에 보냈다**고 리스판서블인베스터(Responsible Investor, RI)가 11일(현지시간) 보도

- 지난해 4월 제안된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의 개정안인 지속가능성보고규칙(CSRD)이 올해 채택을 앞두고 막바지 3자간 협의(trilogue)를 거치고 있음. 3자간 협의란 법안 확정을 놓고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집행위원회가 각 조항 및 규칙에 대해 최종 타협을 하는 단계. CSRD에 대한 3자간 협의는 빠르면 다음달에 종료되어, 최종 취합 후 CSRD가 시행될 계획

- 3자간 협의에서 CSRD 세부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ESG 투자 생태계를 리드하고 있는 UN PRI와 Eurosif는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보다 강력하고 분명한 정보 공개 요구가 CSRD에 담겨야 한다'는 자신들의 견해를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집행위원회에 보낸 것**

- 서한에서 UN PRI와 Eurosif는 "CSRD 프레임워크가 기업의 의미 있는 전환 노력을 촉진하고 투자자가 지속가능성을 선도하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또한 지난해 개최된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기점으로 넷제로(탄소중립)를 약속한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최소한 넷제로를 선언한 기업부터 **'넷제로 전환 계획에 대한 시나리오와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가정(assumptions)'을 공개하도록 CSRD를 통해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 RI에 따르면, 지난달 유럽의회가 CSRD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Eurosif는 UN PRI와 함께 넷제로 목표를 가진 기업들이 △넷제로 이행 시나리오 △산업군에서 사용되는 넷제로 전환 가정(assumptions)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상쇄(Offset) 비율 등이 공개될 수 있도록 CSRD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 이 요청은 당시 부결되었지만, 서한을 통해 다시 요구되어진 것

- 더불어, 이번 서한에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교가능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업 넷제로 약속이 과학에 기반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넷제로 이행 시나리오의 가정과 강력하고 구체적인 공개가 CSRD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구

- 빅터 반 후른(Victor Van Hoorn) Eurosif 전무이사는 "CSRD는 EFRAG(유럽 재무보고 자문 그룹)에서 개발 중인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의 전체 프레임워크와 범위를 설정할 것"이라며 "우리는 규칙 각각에 보다 세분화된 요구 사항이 적용되기를 원한다"고 서한을 보낸 이유를 RI에 밝힘

* CSRD란?

- 임직원 500인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을 적용해온 유럽연합은 표준화된 공시 기준이 부재해 NFRD만으로 지속가능성을 비교하거나 활용될 수 없다는 등의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CSRD로 개정하겠다고 2021년 4월 발표

- 개정안인 CSRD의 핵심은 1)의무 정보 공시 대상 및 내용의 전면 확대, 2)정보의 신뢰성, 비교성, 접근성 제고(표준화 Tool 적용과 공시 내용에 대한 감사 등), 3)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부담의 차별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CSRD 개정안은 2022년 채택될 예정